

벤엘의 하나님

말씀 : 창세기 27:46-28:22

요절 : 창세기 28:18,19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곳 이름을 벤엘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오늘 말씀에는 형 에서를 피해 하란 땅 밧단아람으로 가는 야곱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브엘세바 고향 집을 떠나 낮선 땅을 향해 홀로 가는 막막하고 두려운 광야에서 야곱의 꿈속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자신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인격적으로 그의 하나님으로 만나 주셨습니다. 야곱에게 지금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은 역경 중에 함께 하시고 비전을 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께 서원으로 응답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중심적인 삶,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을 살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이 서원은 야곱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성을 맺고 신앙생활을 본격적으로 출발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인생길을 가는 동안 두렵고 불안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 주셔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주시길 기도합니다. 그래서 벤엘의 하나님을 묵상하며 야곱이 만난 벤엘의 하나님을 만남으로 한 단계 높은 차원의 믿음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길 기도합니다.

I. 밧단아람으로 떠나게 된 야곱(1-9)

27장을 보면 에서가 단단히 화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속임수로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모든 축복을 가로챘기 때문입니다. 이 일로 인해 에서는 야곱을 죽이고자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를 알아 챈 리브가는 야곱을 자기 오빠 라반이 있는 밧단아람으로 보내고자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결혼을 구실로 삼았습니다. 에서가 가나안 헷 족속의 두 딸을 아내로 삼아 이삭과 리브가의 근심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리브가는 야곱의 아내는 가나안 여자에게서 구하지 말고 자기 동족 가운데서 구하자고 이삭에게 제의했습니다. 이에 이삭은 동의하고 야곱을 밧단아람으로 보내고자 하였습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아람으로 가서 네 외조부 브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네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28:1,2)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결혼 방향을 주었습니다. 이삭은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 한다는 사실은 몰랐습니다. 단지 야곱에게 믿음의 결혼을 시키고자 그를 800km나 멀리 떨어져 있는 라반의 집으로 보내고자 하였습니다. 이삭은 야곱이 믿음의 결혼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분명 하였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것이 중요할까요?

그것은 믿음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야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시고 처음으로 주신 축복의 말씀이 바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8장 17절에서도 하나님은 홍수 심판 가운데 살아남은 노아 가족에게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삶이 하나님이 축복하신 삶입니다.

믿음의 가정을 이루도록 하는 방향 앞에 야곱은 어떠했습니까?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밋단 아람으로 갔으며”(7) 부모님의 방향에 적극적으로 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만 가지가 부족해도 하나님의 방향에 순종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사용하십니다.

II. 비전을 주신 하나님(10-15)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10) 야곱이 아버지 집이 있는 브엘세바를 떠나 밋단아람으로 향하여 가는 중에 편도나무라는 뜻의 루스에 이르렀습니다. 루스는 브엘세바로부터 약 85km 떨어져 있는 곳인데 야곱은 예서의 낮을 피해 도망치듯 달렸을 것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느라 매우 지치고 피곤했을 것입니다.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 곳의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11) 한 곳에 이르자 해가 저물기 시작하더니 이윽고 해가 졌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한 곳을 잡아 유숙(留宿)하고자 하였습니다. 사방은 캄캄하고 황량한 들판이었습니다. “아우~” 가끔씩 멀리서 들짐승이 우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쉬이익” 황량한 들판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집 떠나면 고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야곱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동안 부잣집 도련님 대접 받으며 폭신한 침대가 있는 집에서 엄마가 해 주는 따뜻한 음식을 먹었습니다. 사실 야곱은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는 거부의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야곱의 처지는 어떠합니까? 맨 땅에 누워 돌베개를 베고 잠을 청하는 야곱의 심정이 어떠하겠습니까? 야곱은 반듯한 돌을 하나를 주어 베개를 하고 하늘을 이불 삼아 누웠습니다. 그는 딱딱한 돌을 취하여 베개하고 땅 위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몸은 친근만근이었지만 쉽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하늘에 반짝이는 별 속에서 아버지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라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이것저것을 생각하니 갑자기 외로움과 서글픔이 밀물처럼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이 순간만큼은 아무도 야곱과 함께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의 인생을 헌신적으로 뒷바라지 해주던 엄마도 곁에 없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혼자가 되었습니다. 야곱은 뒤척거리다 깜빡 잠이 들었습니다.

잠자던 야곱은 한 꿈을 꾸었습니다. 그는 그 꿈속에서 놀라운 광경을 보았습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12,13a) 그는 꿈속에서 사닥다리(사다리)를 보았습니다. 사닥다리는 땅 위에 서 있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아 있었습니다.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을 통해 세 가지를 보았는데 원문에는 모두 감탄사로 되어 있습니다. “보라, 사닥다리가! 보라, 하나님의 사자들이! 보라, 여호와께서!” 야곱은 세 가지 광경을 차례차례 보았습니다. 땅에서 하늘까지 연결된 사닥다리 그리고 그 사닥다리를 오르락내리락 하는 천사들, 마지막으로 사닥다리 끝에 서 있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사닥다리 꿈은 야곱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첫째, 하나님은 야곱과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일반적으로 하늘과 땅은 온 우주(宇宙)를 뜻하는데 여기서는 대칭적인 공간을 말합니다. 땅은 지상의 세계요, 인간의 세계며 하늘은 천상의 세계요,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이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것으로 사닥다리(사다리)가 나옵니다. 한글 성경에 사닥다리라고 번역을 해서 야곱이 본 것을 사다리 같은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성경학자들은 사닥다리 보다는 계단으로 보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말합니다.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계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땅에 있는 자가 하늘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계단인 것입니다. 야곱이 유심히 그 사닥다리를 보니까 하나님의 사자들이 계단을 이용해 부지런히 양방향으로 오르락내리락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나다니엘에게 인자 위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요1:51) 곧 야곱이 본 사닥다리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중보자 예수님을 통해 하늘의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범죄 한 인간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사닥다리요, 중보자가 되십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죄 사함을 받고 영이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로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 영혼의 새 힘과 위로와 소망을 얻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야곱은 주로 어머니와 교제하며 살아왔습니다. 어머니와 대화하며 어머니와 성경공부도 하고 어머니와 요리도 하며 어머니와의 교제로 만족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어머니와 교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어머니와 교제할 수 없기에 더욱 힘이 들고 고독하기만 하였습니다. 또 어머니는 시공간의 제약을 받으며 언젠가 죽기에 영원한 교제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야곱은 영원하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교제하셨듯이 이제 야곱과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에게 말씀하시고 그의 크신 뜻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닥다리는 하나님과 야곱을 잇는 초고속 통신망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언제든지 야곱에게로 오실 수 있고 야곱 또한 언제든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둘째, 하나님은 야곱을 구속역사의 계승자로 세우십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13b) 하나님은 야곱에게 먼저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여호와라는 야곱의 아버지 이삭,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의 하나님도 되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이어지는 계단 꼭대기에 서 계셨습니다. 야곱의 꿈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타나심입니다. 도망자 야곱이 낯선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께서 고통 가운데 있는 야곱을 먼저 찾아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소개하신 후 이어서 삼중적인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13c,14절을 보십시오. “네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 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은 야곱에게 그가 누워있는 땅과 땅의 티끌과 같이 많은 자손을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는 일찍이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축복이며, 아버지 이삭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복입니다. 하나님은 이 복을 야곱에게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또한 땅의 모든 족속이 야곱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셋째, 하나님은 야곱이 어디를 가든지 그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15) 야곱은 강도들과 들짐승들이 가득한 광야에 홀로 있습니다. 한 치 앞도 내다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야곱은 현재 현실 문제가 절박했습니다. 지금 야곱은 하룻밤만 들짐승들로부터 보호해 주어도 감지덕지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룻밤 정도 지켜주시는 것이 아니라 어디를 가든지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야곱이 계승한 영적인 축복을 다 이루기까지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땅과 자손, 모든 족속의 복은 먼 미래의 일입니다. 집 떠나는 그의 관심은 당장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 이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그를 잘 아셨습니다. 하나님은 현실과 먼 미래만 이야기 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가장 듣고 싶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함께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그를 떠나지 않으리라 하십니다. 그와 언제나 함께 하셔서 결국은 그를 이끌어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현재 야곱 곁에는 아무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십니다. 야곱은 객지에서 많은 위험에 노출될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그가 어디로 가든지 지키실 것입니다. 또한 야곱은 평생 집 떠난 나그네로 살아갈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이끌어 집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늘 그와 함께 하시며 그의 안전한 귀환을 약속하셨습니다. 야곱이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 때 어떤 막대한 상황도 헤쳐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처량한 도망자 야곱에게 사닥다리 비전을 보여주시고 자손과 땅과 안전한 귀환에 대한 약속을 주셔서 그를 위로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는 것보다 더 든든하고 소중한 약속이 어디 있었습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사명을 주실 때 늘 하셨던 말씀입니다. 모세가 애굽 백성들을 구원하라는 말씀을 받았을 때 그는 그가 그 사명을 감당하기 힘든 점들을 말했습니다. 특히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하여 말을 잘 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출4:12) 예수님은 아직도 부활을 의심하는 이가 있는 연약한 제자공동체에 복음전파와 세계선교 사명을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 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마28:20)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모세는 혈혈단신(孑孓單身) 애굽에 가서 당시 세계최강대국 애굽의 바로 왕을 상대하여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열두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전하였습니다. 우리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번 택하신 자를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호세아 11:8절은 말씀합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 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 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아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또한 이사야 49: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은 항상 택하신 자를 먼저 찾아오시고 택하신 자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곧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을 우리는 ‘임마누엘’이라고 부릅니다.(마1:24) ‘임마누엘’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마28:20)

‘모래 위의 발자국’이란 메리 스티븐슨(Mary Stevenson)의 시(詩)가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사람이 밤에 꿈을 꾸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해변을 걷고 있는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늘 저쪽으로 자신의 지나온 날들이 비쳐졌습니다.
한 장면씩 지나갈 때마다 그는 모래 위에 두 사람의 발자국이 난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는 그의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주님의 것이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장면이 비쳐졌을 때 그는 모래 위의 발자국을 모두 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발자국이 한 쌍 밖에 없을 때가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바로 그의 삶에 있어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기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주님께서는 언제나 저와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는 한 사람의 발자국 밖에 없습니다.
제가 주님을 가장 필요로 했던 시간에 주님께서 왜 저와 함께 하지 않으셨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들이. 나는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버리지 않았단다.
네 시련의 시기에 한 사람의 발자국만 보이는 것은
바로 내가 너를 업고 갔기 때문이란다.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길ियो, 사닥다리가 되십니다. 온 세상 다 날 버려도 하나님은 날 버리지 않습니다.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것도 중요하고 내 인생을 성공으로 이끌어 줄 유명한 사람과 만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고 계십니다. 때로는 수양회를 통해서 말씀공부를 통해서 기도실에서 기도할 때 순간순간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우리를 향해 손 내시미고 우리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를 보듬어 주십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해 주는 길이 되시는 예수님 안에 우리가 온전히 거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III. 하나님의 집 벧엘(16-19)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16,17) 야곱이 잠이 깨어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야곱이 깨달은 바는 여호와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는 사실이었습니다. “Surely the LORD is in this place!” 여기는 장소적인 의미와 함께 시간적으로 현재를 뜻합니다. 한 마디로 야곱이 깨달은 것은 God is now and here! 이었습니다. 야곱이 이 하나님을 생각할 때 두려움이 들었습니다. 이 두려움은 깊은 존경에서 나오는 경외심이었습니다.

야콥은 지금까지 여호와와는 거룩한 집에만 계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여호와와는 할아버지나 아버지하고만 함께 하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는 브엘세바에나 계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그동안 할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에 대해서 참 많이 들었습니다. 아버지의 인생 소감, 그 중에서도 결혼에 관한 에피소드를 듣고 있노라면 한편의 드라마였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언제나 막연했습니다. 여호와와의 존재와 능력과 사랑을 부인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확신 있게 붙들 수도 없었습니다. 아직까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여호와께서 ‘오늘’ ‘여기에’ ‘지금’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자기와 함께 하십니다. 야콥은 마침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즉 인격적인 분으로 만난 것입니다. 야콥은 이제 깨달았습니다. 그의 생애에서 가장 소중한 만남의 순간이 일어난 것입니다. 야콥은 어둡고 불안한 밤에 이름 모를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야콥이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난 이 사건은 그의 인생의 일대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이제로부터 시작된 모든 그의 삶의 몸부림은 이 여호와와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는 삶이 힘들면 이 여호와를 붙들고 삶이 기쁘면 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 감사하고 죽을 것 같을 때도 이 여호와와 씨름합니다. 그의 삶은 여호와로 시작되고 여호와로 끝납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은 야콥의 인생에서는 참으로 축복되고 놀라운 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발견하고 깨달아 할 것이 많지만 가장 중대하고 유익한 깨달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을 때 한 사람의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삶의 터전과 빛깔이 근본적으로 바뀝니다. 그 사람의 내면과 얼굴이 달라집니다. 경건한 두려움이 인간적인 두려움들을 사라지게 하고 경건한 두려움으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삶이 든든해지며 자신감이 생깁니다. 절제하며 거룩해집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만남이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님과 인격적 만남이 없이 신앙생활 합니다. 분위기 때문에 친구가 가니까 혹은 교회에 나가면 취직도 잘 되고 평안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꽤찮은 생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도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없이 어려움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한 번에 무너지고 맙니다. 삶의 현장에서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 삶은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금방 무너지고 맙니다. 남이 만난 하나님, 즉 친구의 하나님, 목자의 하나님, 부모님의 하나님, 유명 인사의 하나님, 역사 속에 등장하는 하나님은 실제 삶 속에서 나에게 별로 힘이 없습니다. 나의 하나님을 만날 때만이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을 만날 때만이 어떤 문제와 유혹 속에서도 요동하지 않고 곳곳하게 믿음의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이 우리를 더 깊은 믿음의 세계, 신앙의 세계로 이끕니다. 신앙생활은 갈수록 하나님과의 더 깊은 만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의 삶 속에서 얼마나 더 깊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느냐에 따라 나의 신앙도 그 만큼 더 깊어지게 됩니다. 나의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난 사람의 삶이 날마다 소망이 넘치고 비전이 넘칩니다. 인격이 변화되고 삶에 실제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야콥의 또 다른 고백이 무엇입니까?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 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17)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하늘로 들어가는 문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가는 통로를 의미합니다. 야콥에게는 자신이 베고 있는 딱딱한 돌이 하나님의 집이요, 이름 모를 이 황량한 들만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가는 문이 되었습니다. 그는 그곳이 하나님의 전이요, 그 전으로 들어가는 하늘의 문임을 깨달았습니다. 드디어 야콥의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미우라 아야고는 일평생 몸에 병을 품고 살았으나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빙점』 『길은 여기에』 『이 질그릇에도』 등의 책을 통해서 연약한 이들을 격려하고 위로했습니다. 미우라 아야꼬는 척추결핵으로 시작해서 암까지 앓아보지 않은 병이 없을 만큼 고통을 많이 받았습니다. 오죽 심했으면 “인간의 몸은 질병이 사는 집”이라고 말했겠습니까. 그러나 미우라 아야꼬는 병중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병 때문에 다른 사람의 고통을 이해하는 작가가 되었습니다. 자신이 겪은 아픔 때문에 고통당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치유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인생의 어려운 터널을 지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싶지만 만나지 못하는 영혼의 답답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어도 믿음이 예전만큼 뜨겁지 않다는 사실 때문에 힘들어할지 모릅니다. 기쁨을 상실하고 슬픔과 우울한 마음으로 살고 있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절망의 자리에서 믿음이 무너진 자리에서 폭풍 한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할 수 있습니다. 미우라 아야꼬는 고통 속에서 받은 은혜를 이렇게 말합니다. “아프지 않으면 드리지 못할 기도가 있습니다. 아프지 않으면 믿지 못할 기적이 있습니다. 아프지 않으면 접근하지 못할 성소가 있습니다. 아프지 않으면 우리러 뵈지 못할 거룩한 얼굴이 있습니다. 아, 아프지 않으면 나는 인간일 수조차 없습니다.” 지금이 하나님을 만날 때입니다. 하나님이 지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꼭 필요한 시간 꼭 필요한 장소에 우리를 만나러 오십니다. 한 주간 우리가 벤엘로 나아가서 나의 하나님의 깊이 만나고 교제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벤엘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18,19)

야곱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를 하였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웠습니다.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의 이름을 벤엘이라고 불렀습니다. 벤엘은 베트(집) + 엘(하나님)의 합성어로서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거룩한 성소를 말합니다. 그는 이곳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습니다. 아무도 없는데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하며 돌에 기름을 붓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곳은 야곱이 난생 처음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예배를 드린 교회요, 성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이곳은 도망치다 잠시 유숙한 의미 없는 곳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생의 가장 절망적인 장소에서 하나님을 가장 깊이 만난 장소가 되었습니다. 벤엘은 야곱이 하나님을 처음 만난 곳입니다. 영적인 고향입니다. 벤엘 이전의 야곱과 벤엘 이후의 야곱은 다릅니다. 도망자 야곱이 예배자 야곱이 됩니다. 나그네 야곱이 거룩한 순례자가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뜻밖의 장소에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모세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주님을 만났습니다.(출3:4) 예레미야 선지자는 시위대 뜰 안 감옥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렘33:2) 베드로는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 잡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눅5:8)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자들을 체포하러 가다가 다메섹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행9:4) 이처럼 주님께서 전혀 예상치 못한 뜻밖의 장소에서 나를 만나 주십니다. 그 곳은 시험이나 사업을 실패하고 낙심한 장소일 수 있습니다. 곰팡이 냄새 자욱한 기도실일 수도 있습니다. 목자님에게 이끌려 어쩔 수 없이 참석한 여름수양회일 수 있습니다. 중간고사 시험공부 하다가 머리가 무거워서 잠시 밖으로 나왔는데 하늘을 쳐다보다가 주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곳 그 곳은 바로 나의 벤엘인 것입니다. 이 벤엘은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있을 수 없는 신앙의 체험의 장소였습니다. 우리에게는 다 이런 벤엘이 있을 것입니다. 야곱에게 힘과 위로가 되었던 곳, 감격과 기쁨이 되었던 곳, 또 한편으로 하나님께 대한

깊은 경외심을 체험한 곳, 그 벤엘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IV. 야곱의 서원기도(20-22)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십분의 일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20-22)

야곱은 베개 하였던 돌을 가져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부운 후 하나님께 서원하였습니다. 서원(誓願)이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도움을 받기 위해서 하는 맹세를 말합니다. 야곱의 서원은 네 가지 조건절과 세 가지 결과절로 이루어집니다. 네 가지 조건절이란 첫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둘째,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지켜주시고 셋째, 나에게 양식과 입을 옷을 주시고 넷째, 나를 집으로 평안히 돌아오게 하신다면입니다. 세 가지 결과절은 첫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둘째, 그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되고 셋째, 소유의 십분의 일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조건은 네 가지인데 그 조건에 대한 결과는 세 가지입니다. 더구나 그 세 가지 중에서도 야곱이 직접 하겠다고 하는 것은 딱 한 가지뿐입니다. 소유의 십분의 일을 드리는 것입니다. 야곱은 십일조(十一條)를 드리겠다고 결단하였습니다. 십일조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겠다는 결단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생사화복의 주관자임을 고백하는 결단입니다. 그돌라오엘 군으로부터 조카 롯을 구출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도 그를 축복하러 나온 벨기세텍 왕에게 십일조를 드리겠다고 결단하였습니다. 그는 전쟁의 승리를 주신 분이 하나님임을 고백한 것입니다. 그것은 물질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요, 자신의 삶의 순간순간이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 받고 자만 하지 않고 이제 드리는 삶을 살겠다는 헌신의 표시입니다. 그 사람의 신앙이 성장하고 주님의 더 큰 축복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십일조 생활을 해야만 합니다. 십일조 생활은 낭비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인 것입니다.

야곱이 이처럼 주님만을 섬기며 십일조생활을 하고자 서원하며 결단했을 때에 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창세기 30:43절에 보면 그가 20년 동안의 하란 생활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올 때에 거부(巨富)가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주님께 헌신하는 자의 삶을 절대로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축복하십니다. 축복하시되 야곱의 외삼촌 식구들이 야곱의 부함을 시기할 정도로 넘치게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하나님께 헌신하며 십일조를 드리는 삶은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의 기도를 보면 하나님은 그에게 원대한 계획과 비전을 말씀하시는데 그는 오직 자기의 필요와 안전에 관한 것들뿐입니다.

그러면 이 서원기도가 야곱의 일생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의 서원을 기초로 그를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야곱은 이 서원을 종종 잊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시고 그 서원대로 이루어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야곱이 서원을 잊어버리고 함부로 살 때마다 벤엘의 하나님! 벤엘의 서원을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이로써 하나님을 처음 만난 자리요, 하나님과 첫 사랑의 관계를 맺은 벤엘로 올라가서 순수한 신앙과 첫 사랑을 회복하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형을 피해 광야로 내몰린 야곱을 인격적으로 만나주셨습니다. 야곱에게 허락한 모든 축복을 다 이루기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외롭고 힘든 광야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축복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뱀엘이 되었습니다. 뱀엘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야곱의 인생은 새로운 세계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그의 믿음이 부모님을 통해 배운 이론적인 것이었다면 뱀엘의 체험이후 야곱의 신앙은 인격적이고 구체적이 되었습니다. 야곱은 지금까지 겨우 형 에서와 경쟁하며 장자권만 호시탐탐 노렸다면 이제 뱀엘 체험이후 야곱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4차원의 영적 세계를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이제까지 야곱의 신앙이 하나님으로부터 뭔가를 받아 내고자만 하는 신앙생활이었다면 이후부터는 하나님께 드릴 줄도 아는 자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광야에서 야곱이 만난 뱀엘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도 순간순간 예기치 못하게 찾아오는 광야에서 뱀엘의 하나님을 만나야 하겠습니다. 뱀엘의 하나님을 만난 뒤 하나님께 예배하는 야곱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생, 하나님께 서원하며 서원한 것을 이루는 인생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